

보도일시 (인터넷) 2024. 3. 21.(목) 06:00,
(지면) 2024. 3. 21.(목) 석간

배포 2024. 3. 20.(수) 14:00

해수부, 올 3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총력 대응

- 강도형 장관, 부산 민락어민활어위판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 방문
- 3월 물가관리를 위해 할인지원 예산 500억 원 투입, 정부 비축물량 600톤 방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1일(목) 오전 부산 민락어민활어위판장에서 개최 중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방문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전국 66개 시장에서 3월 16일(토)부터 29일(금)까지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이날 강도형 장관은 부산 민락어민활어위판장에 방문하여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주요 수산물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한다. 또한, 위판장에서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으며 소비자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현장에서 “수급 불안품목인 오징어 등 주요 어종이 4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되면 수산물 물가 상황은 더 나아지겠지만, 현 수급 상황을 감안했을 때 3월이 올해 수산물 물가 관리의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물가 안정세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3월에 할인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정부 비축물량도 할인 방출하는 등 수산물 물가관리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 예산을 추가 투입하고 주요 수산물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3~4월 두 달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284억 원), 마트·온라인몰 할인행사(200억 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20% 할인 발급(16억 원) 등 할인지원 예산 500억 원을 투입하여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공급이 부족한 오징어는 4월 원양산 물량의 국내 공급이 시작되기 전까지 정부 비축물량 400톤과 민간 보유물량 200톤 등 총 600톤을 3월 중 신속하게 공급하여 가격 안정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요 분산을 위해 다른 대중성어종 5종도 정부 비축물량 400톤을 할인 공급(3.14.~)하여 마트 등에서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공급 확대에 노력한다.

한편, 강도형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공동어시장을 방문하여 고등어 등 주요 수산물 유통현황을 점검하고 어시장 관계자 등을 격려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공동어시장 관계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대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44-200-5440)
		담당자	서기관	정재훈 (044-200-5447)
		담당자	사무관	임정묵 (044-200-5446)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3월 행사 참여시장

